

광주·전남 작년 11월 제조업 생산·수출 증가



한은 광주전남본부 '지역 실물경제 동향'

자동차·전자부품 등 주력산업 기지개 식료품·음식·숙박 등 중심 물가 상승

지난해 11월 광주·전남지역 제조업 생산과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제공한 '최근 광주·전남지역 실물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광주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13.1% 증가했다. 업종

별로는 전자부품(19.3%), 자동차(17.0%) 등을 중심으로 늘면서 전월(-4.1%)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다.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동월대비 5.9% 증가했다. 백화점 판매(17.9%)는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대형마트(-

11.6%)는 감소폭이 확대됐다. 같은 달 수출은 자동차(-13.8%)가 줄었으나 전자전기(27.9%), 플라스틱·고무(5.0%) 등이 늘면서 전년동월대비 10.9% 증가했다. 전월(0.1%)대비로도 증가폭이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교통(10.7%), 식료품·비주류음료(5.3%), 음식·숙박(5.0%) 등을 중심으로 올랐다. 작년 11월 취업자 수(74만3,000명)는 전년동월대비 1,000명 감소해 전월(2,000명)의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했다. 전기·운수·통신·금융업(9,000명)

등에서 증가했으나 제조업(-5,000명)과 도소매·숙박음식업(-3,000명) 등의 취업자가 감소했다. 전남지역 지난해 11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6.1% 증가했다. 1차 금속(-3.6%)이 감소했다. 반면 화학제품(37.8%), 석유정제(28.3%)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12.2%)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같은 달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보합을 보였다. 수출은 석유제품(111.6%), 화학공업제품(83.0%), 철강금속(43.0%) 등이 크게 늘면서 전년동월대비 67.4% 증가

했다. 전월(89.4%)대비로도 증가세가 지속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4.2% 상승했다. 교통(12.0%), 식료품·비주류음료(5.5%), 주택·수도·전기·연료(5.1%) 등을 중심으로 올랐다. 작년 11월 취업자 수(100만8,000명)는 전년동월대비 2만3,000명 증가해 전월(2만8,000명)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건설업(-8,000명) 등의 취업자가 감소했으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3,000명)과 농업어업(1만5,000명) 등에서는 증가했다. /황애란 기자

'재난지원금 지원' 스텝 주의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재난지원금 등 각종 자금을 신청하려는 피싱 문자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앙회는 "해당 문자는 재난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사업자금, 마이너스통장 등을 지원한다며 보증기관을 '신용보증재단'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속기 쉬운 내용으로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금리 대출을 대환해 준다거나 보증서를 받기 위해 서류 작업이 필요하다며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 피싱"이라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보이스피싱, 스미싱(문자메시지에 악성 URL을 넣어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휴대전화 해킹) 등 사칭 문자로 의심될 경우에는 불법스팸신고센터(118),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진공, 일자리매칭플랫폼 운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6개 지역본부에 설치된 기업인력애로센터에 '일자리매칭플랫폼'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은 일자리매칭플랫폼을 활용하면 전문상담사를 통해 인재를 추천받아 채용할 수 있고 인재 검색을 통해 직접 채용을 진행할 수도 있다. 구직자는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이나 수출 지원사업 참여 등을 통해 검증된 안정적인 기업의 구인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구직자도 직접 입사 지원을 할 수 있고 취업시까지 전문상담사를 통해 취업 컨설팅과 매칭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은 기업인력애로센터 일자리매칭플랫폼에 구인공고를 등록하고, 구직자는 이력서 등록 후 원하는 기업에 입사 지원하면 된다.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주류제품 칼로리 표시 의무화

앞으로 소주, 맥주 등 국내에 판매되는 주류 제품에 칼로리와 당류·포화지방·콜레스테롤 등의 영양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에 열량과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이르면 내달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알코올 함유 제품이 대상이다. 주류 제품의 열량 및 영양성분 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존 열량 정보가 없어서 소비자가 정확한 열량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문자로 우편 고지서 확인하세요"

이통 3사 '공인알림문자' 서비스 개시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11일부터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1일 KT에 따르면 기존에는 KT만 공인전자문서 체계였으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지위를 획득해 이통 3사 공동으로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 통신 3사는 공인전자문서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호환 배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는 국민연금 가입내문, 지방세 환급내문 등 공공·민간기관에서 발송하는 우편 고지서와 안내문을 전자문서화해 문자메시지(MMS, RCS)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다. 공인알림문자를 통해 발송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오프라인 등기와 같이 고지를 했다는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

받는다. 고객은 기본 문자메시지 앱을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전자고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 인증을 통해서만 문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우편물 분실, 훼손 등 개인정보 유출에도 안전하다. 통신 3사는 안전한 전자문서 유통 생태계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공인알림문자 서비스 전용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스마트폰의 기본 문자 기능에 '공인알림문자 전자문서함' 등을 추가하는 등 공인전자문서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경험(UX)을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통신 3사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통해 종이 우편량을 절감해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등 ESG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혜린 기자



"건강 선물하세요" 11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하1층 식품관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홍삼 선물세트 선보이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위니아딤채, 법무부 장관 표창

건강한 사회 구현 활동 인정 위니아딤채(대표 김혁표)는 11일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위니아딤채가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어려운 이웃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위니아딤채는 매년 사회복지협의회, 아동복지시설 등과 함께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가전제품, 김치, 마스크 등 일상 생활에 꼭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며 이웃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황애란 기자

또 장마철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 재난 발생시, 긴급 구호 물품 및 인력을 지원하고 가전제품 무상 수리 등을 진행하며 빠른 재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폐자원 순환 실천 및 유기 동물 보호를 위한 활동 등 지속 가능한 미래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위니아딤채 대외협력담당 조정형 상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오랜 시간 이어가고 있는 활동을 법무부에서 뜻 깊게 봐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돌봄, 친환경 활동 등에 더욱 힘을 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제주항공, 대한항공 제치고 여객수 1위

작년 국내선 645만명 탑승...2년 연속 점유율 1위 제주항공이 첫 운항을 시작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작년 탑승객 수 순위에서 국적항공사 1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제선 운항이 대부분 중단된 상황에서 국내선 탑승객이 급증하면서 제주항공이 국적선을 포함한 작년 전체 탑승객 수에서 대한항공을 제친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토교통부 항공 포털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작년 국내선·국제선 탑승객은 651만3,000명이다. 진에어가 584만3,000명, 대한항공이 558만9,000명으

로 그 뒤를 이었다. 제주항공의 작년 국내선 탑승객은 역대 최대인 645만9,000명(유입승객 기준)을 기록했다. 전년(432만5,000명) 대비 200만명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국내선 여객 수송 점유율은 2020년 17.2%에서 지난해 19.5%로 2.3%포인트(p) 상승했다.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국내선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제주항공의 작년 국내선 탑승객은 2위인 진에어의 581만1,000명보다 64만명 가량 많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작년 국내선 탑승객은 각각 481만8,000명, 447만6,000명으로 점유율 3위를 차지한 티웨이항공의 509만9,00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7년 이후 국내선 탑승객이 지속해서 늘어났던 제주항공은 2020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탑승객이 감소했지만, 작년에는 탑승객이 급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사는 코로나19 위기에서 화물 운송에 집중했지만, LCC(저비용항공사)는 국내선에 집중하면서 탑승객 수가 역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